



미추홀복지관의 숨은 조력자 - 유건룡교수를 만나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유건룡 교수님

인천 남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에는 꾸준히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님과 학과가 있다. 바로 '인쇄디자인과'의 유건룡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다. 자신들의 꿈을 향해 배움을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을 위해 기술과 재능을 나누고 있는 교수님 이하 학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인쇄디자인과 유건룡 교수

유건룡 교수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인쇄학에 매진하여 인쇄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건룡 교수는 인쇄업계의 독보적인 학자이자 기술전수자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건룡 교수는 이 기술을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자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쇄기술 이용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쇄디자인과
2015년까지 디스플레이 인쇄과로 명명되다가 올해 2016년 인쇄 디자인과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더욱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쇄전자와 출판편집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특성과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중심의 기업맞춤 훈련을 통해 디스플레이설계 및 인쇄 전문인력양성과 출판디자인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자원봉사 및 지역 공헌 활동

국내 유일의 인쇄디자인과라는 타이틀에 맞게 재능기부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본 기관인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멋진 홍보지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과정 (디자인부터 인쇄까지)을 도맡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쇄디자인은 디스플레이 인쇄로 발전하면서 모든 산업에 중요한 핵심기술로 복합예술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전문가인 유건룡 교수는 기술을 혼자만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해 베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여러 기관 및 업체에서 요청을 받아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인쇄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지역 내 도배봉사활동, 문화알리미 등등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전수되는 재능기부

유건룡 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기술뿐만 아니라 나눔에 대한 마음가짐 역시 전수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데(the)하기 봉사단

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인쇄디자인 의뢰에 참여하며 경험의 기회로 삼아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또 인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단순히 자신의 기술을 연습하고자 하는 실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향후 활동 계획

기업이 원하는 진정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유건룡 교수는 의욕있는 기술인은 훌륭한 전문기술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쇄심과 노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의 명언이다.

이 글처럼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인쇄디자인과 학생과 유건룡 교수는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를 배운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더위잡기 프로젝트 제16회 염전골 복잔치

'제 16회 염전골 복(伏)잔치'는 2001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이후 올해로 16회를 맞고 있는 인천 남구 주안동 어르신 잔치입니다.

더운 여름철 복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양식을 지원함으로써 체력을 보강하고, 외부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내 후원자 발굴을 통하여 지역 내 사회공헌에 대한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일시	2016년 7월 중
행사명	제16회 염전골 복(伏)잔치
대상	지역사회보호대상자 및 본 복지관 저소득 가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재가지원서비스 대상자
인원	500명
장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복날 단 하루만이라도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한 체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보양식을 준비하실 때 1인분만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소의 된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발송되었던 미추홀@ 27호 3면 학산문화원 표기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정정보도 드립니다.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실천에 항상 감사합니다.
-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실 분은 032)876-8181로 연락 바랍니다.

형제회아구찜 전문점



대구의 소문난 맛집에서 전수받아 인천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그 집!!
※ 남구 음식 경진 대회수상(추어탕·매운탕)
※ 2015년 12월 2일 SBS 생방송 투데이 방영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위치한 이 가게는 한번 먹어본 사람은 꼭 다시 찾는 맛 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손님의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장님은 새벽부터 나와 그날그날 생을 미꾸라지와 무청을 이용해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니 이만한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맛도 좋은 것은 당연하겠죠?

놀라운 사실 하나

11시 30분부터 15시(오후3시)까지 추어탕이 단돈4,000원이란 사실!!
손님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장님의 열정이 담긴 식사 한 끼 어떠신가요?

☎ 예약문의) 032-422-4666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82(주안동)

선희네소머리국밥



한우 황소만을 고집하며 주안 5동에 터주대감으로 자리잡고있는 소문난 맛집!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이곳은 안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위해 24시간 뜨거운 사골을 우려며 항상 변함없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가보지 않을 수 없겠죠?
선희네 소머리국밥의 또 다른 매력 국내산 게로 만든 맛있는 간장게장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방문하면 꼭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 선희네 특별 메뉴!

선희네 소머리국밥에는 소머리국밥 이외에도 특별메뉴들이 존재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 메뉴도 함께 해 보세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한우 황소만을 사용하여 질 좋은 음식으로 손님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는 선희네 소머리국밥! 함께 가보실까요?

☎ 예약문의) 032-865-3335 · 인천광역시 남구 영창로 65-1 2층

돌판향기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돌판을 이용하여 보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집!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돌판향기는 저렴한 가격과 감동적인 맛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의 맛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손님이 만족하고 나가기 전까지 옆에서 보조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바로 두루치기!! 푸짐하고 상식한 야채와 함께 볶아주는 두루치기는 간장게장은 명함도 못 내릴 밥도둑이라고 하니 꼭 먹어보세요!!

돌판향기의 특별한 서비스 하나

고기를 드신 모든 손님에게 잔치국수가 제공된다는 사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딱!! 멋진 사장님이 맛있는 고기에 돌판의 품미까지 곁들여주는 돌판향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예약문의) 032-873-8625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2(주안동)



복지관 소식



효사랑프로그램 “로그-ON(OLD&NEW)”

-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14:00 ~ 18:00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
- ▶ 내용 : 활동 사진을 이용한 사진 앨범 꾸미기, 도예 체험 프로그램



이주여성 정보화교육 이용자 간담회

- ▶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12시 30분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1층 명상원터
- ▶ 내용 : 정보화교육 이용자 간담회 진행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 일시 : 2016년 6월 3일(수) 13시, 2016년 6월 10일(금) 13시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
- ▶ 내용 :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및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지역의 변화
- 지역의 문제점 발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제안
- 알기쉬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 등



도예 특화프로그램

-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 보리수 공방
- ▶ 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용자 도예체험(코일링 기법수업)



현장학습 - 어린이박물관 방문하기

- ▶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15시
- ▶ 장소 : 어린이박물관
- ▶ 내용 : 장애주간보호센터 아동박물관 견학 및 과학체험, 입체영상관람 등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 소식



사단법인미추홀공덕회(이사장 종연스님)는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불교연합회와 연계하여 각계각층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과 불자님, 지역 내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활동은 조기 나눔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모금운동을 함께 진행을 계획하여 나눔문화의식의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금전액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하게 지원 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미추홀공덕회는 지난 4월 30일 미추홀공덕회, 인천시불교총연합회,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인천 범시민연합모금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인천 범시민 연합 모금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부문화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기대하며 시민과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농촌일손돕기 봉사 후기



지난 6월 12일 일요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양파·마늘 농가에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장애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전 직원과 누리봄봉사단 자원봉사자가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인력이 부족해 농가가 망가지는 것이 안타까웠고 농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더운 날씨에도 자신의 일처럼 땀을 흘려가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분들이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힘썼고 시간이 짧아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아쉬워 하며 다음을 기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는 기관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복지관 보리수 도예 공방을 소개 합니다.

- ▶ 보리수 도예공방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인원	대상	교육비	일시
어린이 도예교실	최대 20명	6세 ~ 13세	40,000원	월요일 16시
성인A 도예교실	최대 20명	20세 이상	40,000원	수요일 14시
성인B 도예교실	최대 20명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다문화·저소득 가정)	무료	금요일 13시
어르신 도예교실	최대 20명	60세 이상	무료	수요일 16시

- ▶ 장 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수강료 및 이용문의 : ☎032)876-8181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대신! 신청한 수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관련서류제출)

알짜배기 소식통

결혼식 갈수도 없는데, 부탁할 사람도 없다면?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719804866>

깜깜한 밤에도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은행

은행권 탄력점포란?

탄력점포란,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다르게 운영되는 점포를 말합니다. 점포에 따라 6시, 7시 그리고 10시 등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엽니다.

현재 탄력점포는 전국 총 53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관공서 소재 점포는 448개, 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는 33개, 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는 40개, 환전센터는 17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력점포 유형

- ① 관공서 소재 점포는 지방세·인지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분들을 위해 연장 운영하는 점포로, 대부분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은 물론이고 일요일에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 ③ 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는 평소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점포입니다. 사무실이 많은 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 ④ 환전센터는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운영되는 점포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707580171>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존! 오존주의보 발령 시 행동지침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

- ▶ 오존주의보 :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 ▶ 오존경보 : 1시간 평균 0.3ppm 이상
- ▶ 오존중대경보 : 1시간 평균 0.5ppm 이상

오존주의보 발령시 행동지침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높아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행동지침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존주의보 발령시에는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바깥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는 바깥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존경보 발령 시에는 주의보와 마찬가지로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며,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실외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kahp_blog/220725120587

우리 동네 탐방

콘텐츠 코리아 랩 (툼 문화창작지대)

인천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쉼터 공원에 자리잡은 조금은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툼 문화창작지대'를 소개합니다.

'툼 문화창작지대'는 '콘텐츠코리아랩'의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신축 건립 및 개소 된 공간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 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문화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인천시가 14년에 유치한 중장기 국책사업으로서 인천지역 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 콘텐츠 분야 창설 지원 등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툼 문화창작지대'에서는 다양한 전용공간을 운영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디어 생성·개발·융합 등 창작자를 양성하고, 창업·창작을 지원하며, 새로운 직업군 창출,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과 같이 개인이 생각하고 상상하던 일들을 상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하반기 동안 아이디어 생성, 개발, 융합과정 관련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화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



툼 문화창작지대 전경



2016년 사업추진 방향

하였습니다.

콘텐츠 드림, 청춘불교, 무한창작 팩토리 등 아이디어 생성과정을 총 59회 운영하며 2,43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 아이디어 개발과정인 기본창작 프로그램, 창작미디어 프로그램, 지역 특화 콘텐츠 전문가 과정, 창작장비 활성화 교육 등을 운영하며 402명의 신규 창작자를 양성하며 인천 문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융합과정인 융합작업 전문가 양성과정, Follow-up 프로그램,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오감 크리에이티브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비창업자 배출 등의 일자리 창출 연계건수가 87건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며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 만큼 '툼 문화창작지대'에는 많은 작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전시·공연·행사 및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테스트베드로 사용되는 다목적홀과 이와 연계되어 있는 2층 다목적 공간, 또 다양한 강의·교육 및 회의가 가능한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편집실, 커뮤니케이션 공간, 음악실, 녹음실, 회의실 등 창작에 필요한

향후 2016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강의로 지역주민들의 상상을 현실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아이디어 생성 과정	무한창작 콘서트	예비 창작자 롤 모델의 창작 노하우 강연 및 인디밴드 공연의 창조 콘서트
	내안의 콘텐츠를 깨워라	청소년 대상 다양한 콘텐츠 분야 교육을 통한 청소년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
	콘텐츠드림	콘텐츠 전문가 강연을 통해 기초를 배우고 아이디어 기획안을 도출하는 창작 입문 과정
아이디어 개발 과정	무한창작 팩토리	창업을 위한 사업 기획 및 멘토링을 통한 모의창업 등 창업&창작자 육성 프로그램
	기본 창작 프로그램	콘텐츠 창작에 대한 기본 교육, 아이디어 기획 및 팀별 프로젝트를 통한 콘텐츠 취업·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세부 12개 과정)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심화 창작 프로그램	콘텐츠 분야 전문 교육을 통한 창작자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세부 10개 과정)	프로그램
	상상 워크숍	단기간 집중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콘텐츠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과정
	창작자 Festival	콘텐츠 창작물 및 시제품 발표회를 통한 창작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작 장비 활성화 프로그램	편집실, 녹음실, 스튜디오 등 창작 장비를 활용하고 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창작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젝트 '로켓'	창작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3D 다락방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창작 트렌트를 반영한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아이디어 융합 과정	콘텐츠 온라인 창업지원	콘텐츠 아이템으로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무한 창작 콘텐츠 개발 제작	상용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제작 지원 프로그램
	지역기반 콘텐츠 창작 사업화 지원	지역의 특수성을 발굴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 과정
	'우끼다' 프로젝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육성 및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전통을 찾아서

농민의 여름휴가 백중날

백중날은 음력 7월 15일에 해당하며 세배길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휴한기에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백중놀이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던 농민명절을 뜻합니다.

백중의 어원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에 드는 속절이며, 백중·중원, 또는 망중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백중은 이 무렵에 여러가지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입니다.

중원은 도가에서 말하는 삼원의 하나로서 이날에 천상의 선관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 데서 연유하였습니다. 또, 망중일이라 한 까닭은 망친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음식·과일을 차려 놓고 천신을 드린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백중의 유래

입하로부터 시작되는 여름은 밭매기와 논매기 등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예말이 있듯이 농촌의 7월은 바쁜 농번기를 보낸 뒤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백중'이라는 속절을 두어 농사일을 멈추고, 천신에게 및 잔치와 놀이판을 벌여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고 더위로 인해 쇠약해지는 건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간행된《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



백중놀이

록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의 중들이 재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큰 명절로 여긴다. 상고하면《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이르기를 중원일(中元日)은 승니, 도사, 속인들이 모두 분(盆)을 만들어 이것을 절에 바친다고 했다.

또 상고하면《우린분경(禹廛盆經)》에 목련비구(木蓮比丘)가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갖추어 분 안에 넣어 갖고 사방대덕(十方大德)에 공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말한 백중일이 백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 때는 부처를 숭상하고 이날이 오면 항상 우린분회(禹廛盆會)를 베풀었다.

오늘날 불단에서 재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중의 유래는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우린분회를 열어 여러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상의 영전에 바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때에 억불숭유정책으로 승려들만의 불교의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백중 풍속

백중에는 여러 풍속이 전해옵니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을 올렸으며, 궁중에서는 풍묘에 이른 벼를 베어 천신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백중놀이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서는 장을 특별히 '백중장'이라 하여 풍장이 울리고 씨름 등을 비롯한 갖가지 흥이 있는 오락과 구경거리가 있어서,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이나 일꾼들은 마냥 즐길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날 지역에 따라 농신제와 더불어 집단놀이가 행해지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전해지며 백중놀이라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중의 시절 음식

여름철에는 발작물인 밀과 보리, 수수나 감자 등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밀가루로 만든 부꾸미인 밀전병과 밀개떡을 해 먹거나 수수나 감자로 떡을 만들어 먹고 부침개를 해 먹기도 하였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백 가지(百가지)풀을 고아 그 물을 먹으면 약이 된다고 믿었는데 백 가지 나물을 장만할 수가 없어 가지의 겹집을 벗겨서 회개 만든 백가지(白가지)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중날을 맞이하여 매년 많은 곳에서 백중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함께 즐겨보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꿈을 키워요

I can do it .

I can do it - 의사

이번 호에서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환순 학생의 꿈인 의사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사정으로 함께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박용범의사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꿈을 꾸고있는 아동을 위한 진실된 응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1. 의사를 지망하게 된 계기, 이유가 있나요?

저는 대대로 의사집안의 장남으로써 별 다른 계기가 없이 자연스레 의사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습과 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그 당시 최고로 알아주던 외과의가 아닌 미숙아, 기형아 등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지금도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Q2.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요약하자면 저는 의사를 추구하는 친구들에게 의사가 되기 위해선 강한 독심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자선의원 박용범선생님

저의 지극한 주관적 의견입니다만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일명 '재주꾼이 될 필요는 없다.'입니다. 저는 특출난 재주와 재주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의사를 목표로 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 오고자 노력해 지금 의사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의사를 추구하는 친구들에게 의사가 되기 위해선 강한 독심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특출난 재주가 없어도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의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공평히 사랑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며 호의를 감히 받을 수 있는 인성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Q3.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의사란 결코 되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과 타인을 사랑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며 노력과 열정을 원동력으로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선교사와 20~3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 아프리카 등 약소 후진국에 의료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봉사를 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언제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며 끊임없이 도전 하는 정신을 갖는다면 아이들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성진 기자)

깨알 소개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심·탐·탐·탐'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아실현 프로그램, '마음·심·탐·탐·탐'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음식 재료로 다양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감각·촉각·후각·미각·후각'과 자연물 수

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각·촉각·농촌 체험활동',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시각·촉각·후각·미각·후각'이 있다.

지난 6월 6일 (월) 인천대공원에서 음식 재료로 다양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감각·촉각·후각·미각·후각'과 자연물 수

확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본인과 본인 자녀들의 사진을 찾으시며 기뻐하셨다. 그중 한 어머니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서 장애인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전을 관람한 한 시민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에 놀랐고, 자녀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다"고 하였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성인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매 달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인주중학교 특특심터 밴드 나인(Nine)

이번에 소개해드릴 동아리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주중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부입니다. 방과 후수업 당시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아 결성된 보컬밴드로 항상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밴드 나인(Nine)! 함께 알아볼까요?

Q1. 청소년 동아리 밴드 Nine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저희 동아리는 인주중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진 밴드 동아리입니다. 특특심터에서 작게 시작한 저희지만 학교 밴드부가 사라지며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고 지금은 인주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밴드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 당시 9명의 멤버가 함께한다 해서 나인(Nine)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홉 명이 적게 느껴졌지만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보컬 기본 구역을 모두 갖춘 탄탄한 밴드입니다. 현재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간단한 오디션 등을 통해 신입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여 열정과 실력을 갖춘 10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밴드Nine의 전반적인 활동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저희 밴드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때 발라드 같은 밴드와는 조금 매치하기 어려운 곡들은 직접 편곡하여 저희의 색깔에 맞게 연주하는 조금은 대담한 밴드입니다. 초창기 공연을 하기 위해 학교수업이 끝난 뒤 매일같이 연습실에 모여 함께 시간

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 개인연습실을 가지고 계셔서 그곳에서 정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주변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찾고 한 번이라도 더 저희의 실력을 보여드리고자 공연 신청을 하여 다양한 자리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Q3. 많은 공연을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올랐던 공연입니다.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그때의 공연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요. 첫 공연이라 많이 긴장도 났지만 그 동안 친구들과 연습했던 저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컸습니다.

Q4.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A. 밴드활동을 하면서 변한 것이 있다면 저희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많아졌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음악실에서 연습을 하면 음악실 창가에 모여 저희의 모습을 구경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평소에도 약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다가가 이것 저것 물어보면서 고구관계가 더 돈 두터워졌습니다. 또, 평소 잘 만나보지 못하는 선배 혹은 후배와 함께 생활하면서 선배배간의 예의를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좋은 힘이 되었습니다.



밴드 Nine 연습



열정적인 Nine 공연

